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보 도 자 료	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

2022년 1월 14일(금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1.14.(금)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22. 1. 13.(목)	담당부서	기계로봇항공과 (우주항공방위산업팀)
담당과장	송용식 팀장(044-203-5150)	담 당 자	최원석 사무관(044-203-4307)

산업부 장관 초청, 「2022년 항공우주인 포럼」 개최

- 민간기업이 우주개발을 주도하는 「New Space」시대 강조 -
- UAM(도심항공교통), 드론 등 미래먹거리 산업 발전 방향 공유 -

□ **산업통상자원부**(이하 '산업부') **문승욱 장관**은 **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**(안현호 회장), **한국항공우주학회**(김종암 회장) 주관으로 개최된 **「2022년 항공우주인 포럼」**행사에(1.14일(금), 서울 JW 메리어트 호텔) 초청받아 참석함

○ 이번 행사에는 **산업부 문승욱 장관**과 **산·학·연 관계자 약 100명** 내외가 **참석**하여 미래먹거리산업(항공, UAM, 우주 등)의 발전방향 및 해외협력 확대를 위한 연대와 협력을 다짐함

* UAM(Urban Air Mobility): 비행고도 300~600m, 4인 탑승가능한 미래형 모빌리티

○ 또한, 항공·우주산업 **관계자들의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격려**하고 **임인년(任寅年) 새해**를 맞아 항공·우주산업의 더 높은 도약을 위해 **2022년도 정책 방향**을 공유함

< 2022년 항공우주인 신년인사회 개요 >

- **일시** : '22. 1. 14(금) 11:00~12:15
- **장소** : 서울 JW 메리어트 호텔 (5층, 그랜드볼룸)
- **참석** : **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**, 안현호(KAI 대표이사), 신현우(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이사), 이수근(대한항공 부사장), 김지찬(LIG넥스원 대표이사), 신재원(현대자동차 사장), 보잉코리아·에어버스코리아 지사장 등 주요인사 100여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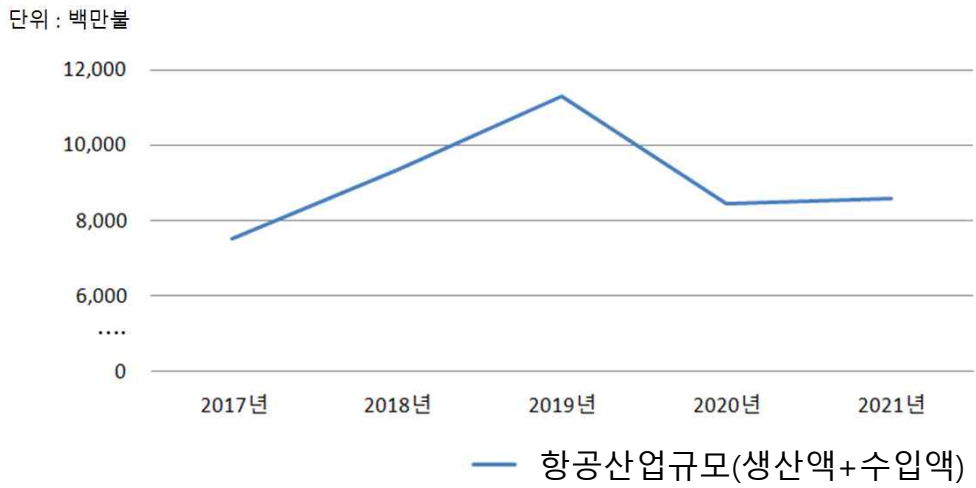
※ '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지침연장(1.4~)'에 따라 **참석자 전원 COVID-19 백신 접종완료 要**

□ 대한민국의 항공산업은 80년대 단순 조립·생산단계에서 현재는 **세계 여섯 번째 초음속기(T-50) 수출국, 열한 번째 헬기(수리온) 개발국으로 발전**하였으며,

○ 국내생산액의 경우 2000년부터 시작된 **연평균 9.5%의 고속성장을** 통해 2019년 국내생산액 60억불을 달성하였으나 **코로나19**로 인해 2020년 국내생산액은 전년대비 18.7% 줄어들었음 ('20년 49억불)

○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에는 항공산업의 시장규모(생산액+수입액)가 전년대비 25.2% 감소하였지만 **정부와 기업이 함께 노력하여 2021년 시장규모는 감소세를 멈춤**

<국내 항공우주산업 산업규모 및 '21년 추정치 >



*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항공우주산업규모 실태조사 (2021)

○ 정부는 항공제조업분야를 **특별고용지원업종**으로 지정하고 **상생협력보증제도**를 수립·시행하는 등 **항공산업생태계를 지원**하였으며 업계들도 항공기여객수요 감소를 항공화물수송으로 극복(대한항공)하고 구조조정보다는 **유급휴직, 직업훈련** 등을 통해 **항공산업의 난관을 헤쳐나감**

□ **문승욱 장관은** 축사를 통해 우주·항공산업이 자본과 기술의 진입장벽이 높지만 진입에 성공할 경우 장기적이고 **안정적인 수익**과 **양질의 일자리**를 창출할 수 있는 **기술집약산업**으로 선진국들은 우주·항공산업을 **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**하고 있음을 밝히며,

○ 대한민국의 세계적인 경제적 수준에 맞게 우주·항공산업을 **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**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강조함

○ 이를 위해 ❶ 기존 항공산업의 세계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**핵심 부품 분야의 경쟁력 확보**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❷ UAM·드론과 같은 신항공산업이 **건강한 생태계**를 이룰 수 있도록 **지원을 강화,** ❸ 우주 산업에서의 **민간기업의 역할 확대** 등을 정책방향으로 제시함

□ 특히 현재 **항공·우주산업이 대전환기**(항공: UAM의 등장, 우주: 민간주도 등)를 맞이하고 있으며 우리나라가 **새로운 항공·우주 산업에서 선도국가로 도약**하기 위해서는 민·관·학의 혁신적인 노력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고 강조함

○ UAM(혹은 Flying Car)에 대한 **세계적인 표준·안전 시스템 등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**에서 발빠른 움직임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**UAM 관련 해외진출, 군 수요 창출, 무인기 개발** 등 **동시 다발적인 전략추진 필요성**을 피력함

○ 더불어 **제트기(10,000lbf 이상)급 첨단엔진 개발**은 오랜 시간 많은 예산이 필요한 사업이지만 우리나라 항공분야를 넘어 기계산업 전 분야로의 파급효과가 큰 만큼 관계부처와 적극 검토하고 있음을 밝힘

○ 끝으로 **민간기업이 우주산업을 주도하는 「New Space」 시대에 대응하여** 우리도 생태계를 강화하고 민간경쟁력이 곧 안보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**산·학·연 모두 함께 힘을 모으자고 언급함**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우주항공방위산업팀 최원석 사무관(☎ 044-203-4307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